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F 063.212.9888

2026년 10월 29일(목) 제 3426호



HD건설기계 군산국가산단 신공장 준공식

28일 군산산업단지에서 열린 HD건설기계㈜ 준공식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재준 군산시장, 김의겸 국회의원, 조영철 HD현대 부회장과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등 참석자들이 DX37엔진 공개식을 갖고 테잎컷팅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HD건설기계 군산 신공장 준공 엔진·배터리 생산거점 도약

1168억 투입 지난해 1월 착공
초대형 발전엔진 연 1250대 생산
K2 전차 엔진 생산능력 확대
배터리팩 연 1460MWh 생산 구축

HD현대그룹의 건설기계·엔진 전문기업 HD건설기계㈜가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초대형 발전엔진과 방산엔진, 배터리팩을 생산하는 신공장을 완공했다.

전북도는 28일 HD건설기계 군산캠퍼스에서 엔진 신공장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재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조영철 HD현대 부회장과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을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마린솔루션·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 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함께 했다.

신공장의 중심축은 초대형 발전엔진과 방산엔진 생산라인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초대형 발전엔진 1,250대, K2 전차용 엔진 120대 규모다.

이번 투자는 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초대형 발전용 엔진 수요가 커지고,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물량까지 확정되면서 방산엔진 증산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군산 라인이 가동되면 HD건설기계의 K2 전차 엔진 생산능력은 기존 인천공장을 포함해 연 240대로 두 배 늘어나, K-방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산엔진 라인은 이달 시범 생산에 돌입했고, 초대형 발전엔진 라인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양산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서는 첫 양산 모델인 1.3MWe급 초대형 발전엔진 'DX37'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신공장에는 연 최대 1,460MWh 규모의 배터리팩(E-Powerpack) 생산라인도 들어섰다. 지난 8월부터 양산 중인 이 라인에서는 상용차·건설장비·산업용 배터리팩과 ESS(에너지저장장치) 모듈·팩을 만들어 관련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HD건설기계는 2024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와 엔진 신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1월 첫 삽을 떴으며, 모두 1,168억 원을 투입했다.

군산캠퍼스는 건설장비와 엔진, 배터리팩을 한곳에서 생산하는 복합 생산거점으로 탈바꿈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내 협력 업체와의 연계 확대도 기대된다. 특히 캠퍼스 안에 13만여 평의 유휴부지가 남아 있어 추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원택 도지사는 "건설기계에 이어 초대형 발전엔진과 방산엔진까지 군산에서 생산하게 된 것은 지역 산업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국감서 '누더기' 된 전북대

김문수 의원 질타 속 해명 나서
산학협력단 비위 의혹 고발·수사
청렴팀 신설 등 40개 과제 추진
기숙사 과밀 논란 내년 2인실 복귀

전북대학교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학협력단 비위 의혹과 1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권 문제, 학생 기숙사 과밀 수용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과 쇄신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함께 근무한 직원 3명 모두 '해당 연구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한국연구재단조차 '제출된 자료로 동 사업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사업비로 구매한 아이패드를 개인이 가져가도록 방치한 데 이어, 비위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시키는 등 관리 부실과 보복성 처분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교내 연구신문고를 통해 제보된 직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 사업단장에 대해 변상 요구와 중징계 요구는 물론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 조치했고, 전담교수에게도 변상 요구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한국연구재단 현장점검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수사기관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와 재단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과 법률에 의거해 엄정하게 적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대의 청렴도 실태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2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8번, 최하위 5등급 4번을 받아 1~3등급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고 2025년에도 다시 5등급으로 내려앉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러한 비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북대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40개 청렴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청렴윤리팀 신설과 총장 청렴특강, 총장 주재 협의회 운영 등으로 기관장 중심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답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기숙사 과밀 수용 논란에 대해서는 "2026학년도 1학기 외국인 신입 유학생이 525명에서 1,937명으로 급증해 국내 학생 수용인원을 유지하고자 처국장회의와 총학생회 간담회를 거쳐 참빛관을 부득이 3인 1실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27년 3월 860여 명 수용 규모의 BTL 5차 기숙사 개관 시 국내 학생은 2인실로 복귀시키고, 2032년 1월 500명 규모의 남원 BTL 기숙사 준공에 맞춰 2032년 3월부터는 전 호관을 2인실로 운영하겠다"고 로드맵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국힘 도당 "2차 공공기관 이전, 산업·일자리 판 바꿔야"

"농생명·금융·새만금 연계 핵심"
맞춤형 유치계획 마련 촉구
농협 조직망 연계 협력사업 구체화
자산운용기관 유치·기능 집적 추진

국민의힘 전북특별도당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전북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부족한 산업 기반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전북의 산업과 일자리를 바꾸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생명·금융·새만금의 성장기반을 공공기관 유치와 연결할 지금이 전북 발전의 최적기로 농협중앙회 유치는 농생명 연구성과를 농가소득으로 연결할 핵심 과제다"고 강조했다.

또 "농촌진흥청·한국식품연구원·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협의 전국 조직망을 연계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생산·육성, 재활승마와 농촌관광 등 협력사업을 구체화해야하고 기관 유치의 효과가 농가와 지역기업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관련 기관의 유치와 기능 집적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및 국제금융센터 조성과 연계해 금융전문인력과 민간 금융회사가 함께 모이는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새만금 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 등 미래산업과 연결되는 연구개발·시험인증·기술사업화 기능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시군·연구기관·대학·경제계가 기관별 산업 연계성과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입지·청사·정주 지원을 담은 맞춤형 유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중앙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력해 입법·예산·정책 지원을 뒷받침하는한편 정부와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후속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道, 중소기업 환경관리 역량강화…화학안전 총력

도비 4억원 투입 ESH 패키지 지원
92개 사업장 위험 진단·119명 교육
24개 기업 노후·취약시설 개선
누출감지센서·탱크 등 정비 지원

전북도가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 밀착형 기술·재정지원으로 해소하고, 기업 스스로 환경을 관리하는 자율환경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지도·점검과 함께 화학안전 진단 및 시설개선, 맞춤형 환경기술지원,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운영비 지원, 찾아가는 환경기술인 교육 등을 추진해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과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도비 4억원을 투입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화학물질 환경안전(ESH)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안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92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전문인력 119명을 교육했다.

시설개선에는 31개 기업이 신청해 현장실사와 심의를 거쳐 24개소(선정률 77.4%)를 최종 선정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화학물질 누출감지센서 설치·교체, ▲방류벽·방류둑 보수·보강, ▲저장탱크 및 이송펌프 개선 등으로, 노후·취약시설 개선을 통해 화학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일 계획이다.

도는 연말까지 추가 컨설팅과 전문교육, 선정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추진해진단·시설개선·교육을 연계한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퇴직연금 개혁 촉구…국민연금 참여·공단 설립 제안

적립금 553조…2034년 1천조 전망
안 의원 '퇴직연금공단법안' 추진
국민연금공단 운용 참여로 전문성
수수료 낮추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


안호영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운용 참여와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쌓아온 소중한 노후자금"이라며, 올해 상반기 말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이 553조 9천억 원에 이르고 2034년에는 1,042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한국투자신탁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였지만, 최근 10년 연 환산 수익률은 2.64%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반면 펀드비용 등을 포함한 지난해 수수료는 약 2조 1,362억 원으로 추산된다(연합뉴스)며 "적정한 서비스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적립금이 커지면서 생기는 비용 절감의 혜택도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전문인력과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999년 40명으로 출발해 올해 6월 기준 500여 명 규모로 전문성을 쌓아 왔고, 전국 112개 지사망과 연금 상담 경험을 활용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고려한 노후설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비영리 공공기관의 참여는 민간 사업자의 운용 성과 개선과 서비스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며 "판단의 기준은 기존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일부 금융사만 좋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방형 등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실무적 논쟁이 있지만,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는 만큼 적정한 선에서 참여를 검토하겠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가입자 노후소득 보장이 대원칙이라는 장관의 답변에 공감한다"며 "국민연금 참여로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퇴직연금공단으로 통합 관리의 책임을 세워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은 줄이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노후소득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정감사에 앞서 발간한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보장 완성을 위한 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자료집을 소개했다.

안 의원은 "적립금이 커지는 만큼 노동자의 노후도 든든해져야 한다"며 "운용 비용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퇴직급여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집에 공적 기금 확대와 퇴직연금공단 설립 방안을 담았다"며 "특히 영국 NEST와 일본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중퇴공) 사례는 공적 기관이 노동자의 노후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퇴직연금 1,000조 원 시대를 준비하려면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장관님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서 자료집을 꼭 읽어보시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도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박지원, 국감서 샴푸·로션 용기 개선책 마련 촉구

16년 방치된 잔여량 문제 지적
식약처, 국내외 용기 조사 추진


박지원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부가 샴푸·로션 등 펌프형 화장품 용기의 잔여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6년 가까이 방치돼 온 샴푸·로션 등 펌프형 화장품 용기의 잔여량 문제를 지난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도 펌프형 용기 구조 때문에 내용물을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샴푸나 로션 등 펌프형 용기를 사용하다 보면, 내용물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펌프가 바닥의 잔량을 끝까지 흡입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며, 버려지는 용량이 10~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알뜰하게 쓰기 위해 용기를 거꾸로 뒤집어 두거나, 아예 통을 잘라내어 남은 내용물을 긁어모으는 수고를 감수해 왔다. 심지어 용기에 물을 넣어 흔들어 쓰는 불편함도 마다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박 의원실은 식약처 및 대한화장품협회 등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기술적 여건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 잔여량 관련 용기 기술조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용기 기술조사 △기술 사례집 발간·배포 △소비자 인식 조사 △산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유도가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일상 불편 해소를 넘어 △소비자 권익 증진 △자원 낭비 및 환경 부담 완화 △화장품 산업 제품 혁신 촉진 △K뷰티 글로벌 경쟁력 확장 등 다방면의 정책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약처의 계획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내용물의 품질을 넘어 용기의 편의성과 자원 효율성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반대 50.3%…여론 과반

KSOI 반대 50.3%·찬성 32%
민주, 탄핵 대신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친여성향의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희대대법원장 탄핵'건에 대해 국민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50.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2.0%였고, '잘 모르겠다'는 17.8%였다.

연령별로 전 연령별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특히 60대(찬성 29.3%·반대 59.6%), 70대(찬성 26.7%·반대 55.5%), 30대(찬성 25.7%·반대 53.5%)에서 반대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고 40대에서는 찬성 43.8%, 반대 44.3%로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고,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1%로 찬성 35.4%를 크게 앞질렀다.

KSOI측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반대가 과반을 차지한 것은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요구가 아직까지 전체 국민 공감대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4050에서도 찬성이 우위를 보이지 못했고, 중도층에서는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4%포인트 급락한 31.5%, 국민의힘 지지율은 3.4%포인트 상승한 40.5%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5.1%, 개혁신당 1.8%, 진보당 1.5% 순이었으며 지지정당 없음은 15.6%였다.

이번 조사는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5.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탄핵 대신에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전북硏 "외국인주민 '유치' 넘어 '정착·통합'으로"

전북도민 22명 중 1명이 외국인주민인 시대다. 2024년 전북 외국인주민은 7만 9,224명으로, 10년 새 83.6% 늘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순창·남원을 제외한 12곳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 해당한다. 외국인 주민이 증가한 만큼 정책도 '몇 명을 유치할까'에서 '얼마나 남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355호) '외국인주민 8만 명 시대, 함께 살아가는 전북을 준비하자'를 통해 '유치-정착-사회통합'을 잇는 3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먼저 '유치'와 '정착'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북은 유학·연수(24.3%), 비전문취업(24.2%) 등 학업·근로 목적 체류 비중은 전국보다 높으나, 거주(1.2%)와 영주(4.2%) 등 장기정착 성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유치 인원보다 취업·체류로 이어지는지,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등 '유입 이후의 정착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착이 곧 사회통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는 이주민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올해 전북이 추진하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88개 과제 중 사회통합 60개(68.2%) 분야를 토대로 세 가지 전환을 제시했다.

첫째, '정착연계형 유치'로의 전환이다. 유치 단계부터 지역의 실제 수요와 함께 취업·체류의 연속성, 생활·가족정착 여건, 지역사회의 수용 여건까지 살피자는 것이다. 도-시군-대학-기업-지원기관이 역할을 나눠 유치 이후의 취업·체류와 생활 정착을 연결하고, 실제 정착 결과까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둘째, '지역별 맞춤형 정착·사회통합 대응'으로의 전환이다. 외국인 규모가 큰 전주·군산·익산, 외국인 비중이 높은 군 지역, 대학 중심 지역과 계절근로 중심 농촌은 필요한 정책이 서로 다르다. 외국인과 지역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상호작용, 생활불편·갈등 경험, 수용성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별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셋째, '성과·환류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참여 숫자를 넘어 체류 지속과 취업 연계, 주거·생활 안정, 지역민과의 관계와 수용성, 실제적 체감 변화까지 확인해야 한다. 정착·사회통합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자는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은 지역의 미래 활력과 직결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6년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에 선정



전주시는 28일 '제63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에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2026년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주시>

책의 도시 전주의 대표도서관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도서관으로 우뚝 섰다.

전주시는 28일 개최된 '제63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에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2026년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 이어 올해 국무총리표창까지 거머쥐며 '책의도시'라는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인 것이다

'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은 전국 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도서관을 발굴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정부포상이다. 올해는 전국 공공·학교·병영·전문도서관 등 2만 2203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경영 △인적자원 △정보자원 △시설 환경 △도서관 서비스 등 5개 영역의 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소관 부처 등을 통한 후보자 추천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평가를 거쳐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전국 58개 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사서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협력 활동,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 등 주요 정량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정성평가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며 도서관 운영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정성평가 우수 사례로 손꼽힌 '직장으로 찾아가는 공유서가'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주시 청년 입주 기업 및 활동 공간 4개소에서 '곁에 서가, 서(書)로 가까이'를 주제로 직장인의 관심사와 생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북큐레이션을 제공했다.

이 사업은 도서관의 공간적 한계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으로 독서문화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실제로 이용자 25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91%가 도서관과 독서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뒷받침했다.

이처럼 시민의 일상 속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해 온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2019년 12월 개관 이후 자료 열람과 대출 중심의 도서관 기능을 넘어 시민 참여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트윈세대(12~16세) 전용공간인 '우주로 1216'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창작하며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주로 1216'은 2026년 9월까지 전국 1111개 기관에서 1만 4473명이 견학·방문하는 등 청소년 특화공간의 우수 운영 사례로 꾸준히 주목받았으며,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대통령상)과 △생활SOC 공모전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해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시는 지난 9월에는 시민들이 자신의 인생책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인생책 아카이빙 프로젝트 '가치서가 1949'를 새롭게 시작하는 등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손의 도시 전주 수공예장터 전시회

전주한옥마을역사관에서 11월 한 달간 운영

전주한옥마을을 주무대로 활동 중인 수공예 작가들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1월 한 달간 전주한옥마을역사관에서 '손의 도시 전주 수공예장터_문화장터 작가 12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전주한옥마을의 대표 거리인 태조로에서 수공예장터를 운영하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수공예품과 볼거리를 제공해 온 문화장터 작가들에게 창작과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는 태조로에서 수공예품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주의 공예문화를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해온 문화장터 작가들이 참여하는 첫 번째 전시회로, 작가들의 창작 활동과 작품 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소개하고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 공예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확대해 창작 의욕과 자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문화장터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제12회 전주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30일 개막

홍보·판매·체험부스 운영 정책포럼·기업 IR 발표대회도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전주시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12회 2026 전주 사회연대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기관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유관기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행사장에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홍보·판매부스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 등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회연대경제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 간 협력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막식 등 기념행사를 비롯해 사회연대경제 정책포럼, 기업 IR 발표대회,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특히 시와 전주시의회,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협의회, 전주시 사회연대경제기업 협의체 간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도 예정돼 있다.

참여기관과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박람회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업과 시민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박람회가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체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지역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수돗물 수질관리 '꼼꼼하게'

상수도사업장 11개소 대청소 등 수돗물 위생 확보 '총력전'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핵심 시설인 배수지와 정수장 등 상수도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약 1억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주지역 11개 상수도사업장(면적 7만8822㎡)에 대한 위생 관리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청소는 배수지 저수조 내부의 침전물 및 벽면 부착물을 제거·소독함으로써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돗물 오염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운영 중이다.

시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 단순히 청소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평상시 저수조 담수로 인해 점검이 어려웠던 내부 시설 부분에 대한 세밀한 안전 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 기간 중 시민들이 단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수지 내 저수조를 구획별로 나누어 청소와 급수를 교대로 진행하는 등 각 가정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배수지 청소 외에도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인 '맑은물 공급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녹이나 미생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또, 용담호 상수원부터 배수지를 거쳐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는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추진

공동·단독주택·사회복지시설 등 최대 70% 지원 내년 1월 사업 신청 접수

전주시가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급수관 교체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노후 옥내급수설비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추진, 총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원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옥내급수관 개선 시 시민 건강 증진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지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공사비의 70% 이하 범위에서 지원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50% 이상)은 세대수에 따라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과 학교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은 최대 350만 원, 단독주택(연면적 85㎡ 이하)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사업 추진에 앞서 오는 12월부터 사전 안내문 발송과 SNS 홍보에 집중,,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전주시 급수설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대상지를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총 100곳(공동주택 88곳, 학교 4곳, 사회복지시설 3곳, 단독주택 5곳)을 지원해 맑은 물 공급 여건 조성에 기여해 왔다.

올해도 총 4억6400만 원을 투입해 6곳(공동주택 5곳, 단독주택 1곳)을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미취업 청년 AI 활용 능력 키운다

청년이음전주서 'AI 리터러시 교육' 운영

전주시가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취업청년들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향상을 견인해 나가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청년이음전주(완산구 현무1길 31-5)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근 일상생활과 직무 영역 전반으로 확산된 AI 활용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취업 준비 및 AI 활용 역량 강화가 필요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거주 청년 총 60명을 대상으로 총 6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새일센터)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6개 과정은 △AI 활용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 △AI 활용 업무 역량 강화 과정 △AI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 △AI 커리어 포트폴리오 과정 △AI 바이브코딩 과정 △AI 활용 그림책 출판이며, 각 과정별로 4회씩 운영된다.

지난 1차 'AI 활용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참여한 청년들은 생성형 AI 도구의 이해와 환경 설정, 문서·기획 실무 적용, 이미지·디자인 도구 활용, 업무자동화 등을 학습했다. 1차 과정은 오는 29일 마지막 교육만 남겨두고 있으며, 청년이음전주는 이들에 대한 자격 평가를 통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참여자들의 학습 효과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 비용과 AI 구독료, 노트북 현장 대여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어 오는 11월에는 나머지 5개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오후 7시~9시와 토요일에 운영되며, 전주시 청정지대 누리집(youth.jeonj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통합돌봄, 아시아미래포럼서 사례 발표

전주시 민관협력 경험 공유 조지훈 시장 "지역 조직 협력이 시민 서비스로 이어지게 할 것"

조지훈 전주시장이 국제 질서 변동과 인공지능 전환이 겹치는 격변 속에서 공동체 공존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에 연사로 나서 전주시가 구축해 온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실천 경험을 공유했다.

조지훈 시장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사회연대경제, 삶과 지역을 잇는 호혜의 망' 분과세션의 지방정부 사례발표자로 참여해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주제로 발표했다.

아시아미래포럼은 국내외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 등이 모여 시대적 과제와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으로, 올해는 '격변의 시대, 리딩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렸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분과세션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의 삶과 경제를 연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기업 간 협의체와 민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주시가 사회연대경제의 기반을 다져온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와 사회적경제박람회, 사회연대금융 등 교류·협력의 경험도 함께 설명했다.

주요 실천 사례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소개했다. 행정과 지역의 여러 기관이 협력해 의료·건강관리와 먹거리, 생활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연계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사례다.

조 시장은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방문 한방진료와 건강관리, 지역자활센터와 시니어클럽의 식사·생활지원,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집수리 등 참여기관의 역할을 설명했다.

시와 동의 통합지원체계가 대상자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도 함께 소개했다.

특히 은퇴한 전문인력 등이 건강지킴이와 안심동행 활동에 참여하는 통합돌봄서포터즈를 통해 시니어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 돌봄에 활용하고, 노인일자리와 주민의 돌봄 수요를 연계한 경험을 공유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지역 조직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그 협력이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연대와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농진청, K-농산물 수출길 확대

농약 잔류기준 개선에 일본 통관 단축 대만 통관 위반 해소

농촌진흥청이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면서 국가별 잔류허용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해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 수출 고추의 통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대만 수출 포도의 통관 위반이 해소되는 등 수출 현장의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입국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확대하고 수입국과의 협의를 통해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은 농산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농약 성분의 최대 허용량으로,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다.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농약이라도 수입국 기준에 맞지 않으면 통관 거부나 반송, 폐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진청은 2003년 6개국 12개 작물 32종이던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올해 13개국 30개 작물 86종으로 확대했다.

태국 수출 딸기·포도, 중국 수출 감, 호주 수출 참외 등에 대한 안전사용지침도 새로 개발해 보급했다.

수입국과의 협의를 통한 잔류허용기준 설정도 확대했다. 일본과 대만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9개 작물에 대해 111건의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국내 수출 농가의 농약 선택 폭을 넓혔다.

실제 일본 수출 고추는 2024년 9월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면서 통관 검사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1주일 이상 걸리던 통관 기간이 1~2일로 단축됐으며, 수출량도 2023년보다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수출 포도 역시 테트라닐리프롤 성분과 관련해 과거 20건의 통관 위반이 발생하면서 약 92만 달러의 손실이 추정됐으나, 지난해 3월 잔류허용기준 설정 이후에는 통관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

농진청은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통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개선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관련 기관과 농약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축적된 3만6천여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농약 안전사용지침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성제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는 생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농산물이 세계시장의 비관세장벽을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는 지난 27일 '우리마을 희망동행'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전북농협>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 농민 지원

'우리마을 희망동행' 실시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지사장 이용우)는 지난 27일 '우리마을 희망동행'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농업·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농축협과 협업해 농민 실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지사장 이용우) 등이 함께 했으며, 관내 조합원 상대 필요물품을 지원했다.

농협자산관리회사 이용우 전북지사장은 "어려운 농촌마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촌마을에 활력 부여를 위해 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청년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1만 명 돌파

노후준비 및 연금 재정 기반 확대 기대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사전신청자가 접수 시작 27일 만에 1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지원 대상자를 약 45만 명으로 추산할 경우 사전신청률은 2.2%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1일 사전신청을 시작한 이후 27일 오후 10시 기준 신청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조기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인 4만1천 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약 45만 명으로 추산되며, 사전신청자는 내년 생일이 속한 달에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현재 사전신청률은 약 2.2%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청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청자 1만 명 가운데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는 3천963명(39.6%), 부모가 대신 신청한 경우는 6천37명(60.4%)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자의 99%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천987명(29.9%), 서울 1천794명(17.9%), 광주·전남 579명(5.8%), 충남 523명(5.2%), 경남 512명(5.1%) 등의 순이었다. 경기와 서울 신청자가 전체의 47.8%를 차지했으며, 전북지역 신청 실적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보하고 향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갈 경우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소득 보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 재정 측면에서도 청년층의 조기 가입과 장기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장기적인 재정 개선 효과는 청년들의 지속적인 가입과 납부 여부에 달려 있다.

공단은 사전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등 현장 중심의 안내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부모의 대리신청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하는 한편, 전국 지역별 현장 홍보를 병행해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지원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청년들이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 안내를 넓혀갈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국민연금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발달장애인 숲 치유'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26일 전주수목원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시작해 총 4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발달장애인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문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전주수목원에서 아로마오일 마사지, 싱잉볼 소리여행 등 다양한 숲 치유 활동을 체험했다.

이러한 숲 치유 활동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발달장애인 치유·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전주시, 캠코 등 6개 기관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본부는 전주수목원을 활용해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올해 진행한 숲 치유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자연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협력해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북전주농협, 여성조직 역량 강화

노고 위로 및 회원 간 결속 다져



<사진=전북농협>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 동안 여성조직 회원 54명과 함께 '북전주농협 여성조직 역량강화 및 단합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이 잘사는 농협'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워크숍은 영농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로 수고해 온 여성조직 회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회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8일, 회원들은 서울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농협 농업박물관 견학과 함께 전문 특강에 참여하며 협동조합 이념을 깊이 이해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역량과 자긍심을 한층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선진 농협인 고삼농협을 찾아 우수 현장 견학을 진행하며 향후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여성조직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항상 북전주농협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시는 여성조직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성조직의 화합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투자전략 세미나 2027년 금융시장 전망 공유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VIP고객을 대상으로 '2027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은행 PB센터 주관으로 본점에서 진행 된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시장흐름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강연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FICC리서치부 이경민 부장이 '전화위복, 비정상의 정상화 그 이후의 시간표'를 주제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 배경과 금리, 환율, 유가 등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했다.

또 2027년 금융시장 전망을 공유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업종별 투자 전망과 함께 시장 국면에 따른 분할매수 및 차익실현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배분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VIP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투자정보 제공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지난 26일 옥산면 내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LED 전등을 설치하는 햇빛봉사단 ESG활동을 실시했다. <사진=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어촌공사군산지사 안전취약가구 개선

태양광 LED 전등 설치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지난 26일 옥산면 내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LED 전등을 설치하는 햇빛봉사단 ESG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농어촌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지사는 지사 소재지인 옥산면사무소와 협력해 관내 기초생계급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야간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에는 전력공급이 필요 없는 태양광 LED 정원등을 가구 진입로에 설치해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를 직접 발굴하고, 공사 직원들이 대상 가구를 찾아가 현장에서 직접 설치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진됐다.

서기수 군산지사장은 "햇빛봉사단 활동이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벼 신품종 '달하미' 첫선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서 홍보관 운영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수확한 벼 신품종 '달하미'를 도내외 관람객에게 선보이며 품종 홍보에 나섰다.

센터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달하미 홍보관을 운영했다. 행사 기간 품종 특성을 소개하고 전북 주요 재배품종의 쌀을 비교 전시해 관람객들이 달하미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달하미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정읍시가 함께 개발한 수요자 참여형 맞춤 품종이다. 2018년 교배 이후 2023년부터 3년간 선발·실증을 거쳐 올해 2월 신품종으로 출원됐다.

품종명은 시민 공모로 정했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의 첫 구절인 '달하 노피곰 도다샤'에서 이름을 따와 정읍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았다.

달하미는 기존 품종인 '신동진'보다 단백질 함량이 낮고 도정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밥맛 평가(식미평가)에서도 대다수가 "신동진과 밥맛이 비슷하거나 더 좋다"고 평가했다.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여물어 완전미 비율이 높고, 키다리병과 흰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에도 신동진보다 강하다. 밥맛과 재배 안정성을 함께 갖춰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정읍시>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행사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이 달하미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다"며 "육종가와 농업인, 시민이 함께 만든 달하미를 정읍을 대표하는 고품질 쌀로 키워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 전 지표 통과

사교육비 경감 우수정책 선정…참여율 전국 최저로 인센티브 확보


천호성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교육부 주관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정량평가 4개 영역 17개 전 지표를 모두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등급제가 폐지된 올해 평가에서도 전 지표 통과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 추진 노력 및 성과'가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성과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정량평가 2억 5,000만 원, 우수사례 1억 2,500만 원 등 총 3억 7,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특히 국가 책임 공교육 강화 영역에 속한 5개 지표(사교육비 경감, 고교학점제 안착, 기초학력 보장, 이주배경 학생 교육력 제고 등)가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초등 무상 예체능 및 돌봄 확대, 중등 학력향상도전학교 100교 운영, 24시간 진로진학 상담체계 구축, 대입 윈터·썸머스쿨 등 맞춤형 정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전북의 사교육 참여율은 66.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3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5%p 감소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이번 평가는 전북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일군 값진 결실"이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교육청, 위기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방부터 회복까지 5단계 지원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심리·정서적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복합화되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별 사업 중심의 방식을 탈피하고 '예방-조기발견-긴급지원-협의체-회복'으로 이어지는 5대 핵심 전략 체계를 구축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전북 학생 자살률을 뚜렷한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단계별로는 우선 초등 5학년과 중·고교 1학년을 중심으로 사회정서교육과 마음챙김 동아리 활동을 강화해 학생 스스로 정서 회복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아울러 교원 대상 위기 신호 포착 연수와 학부모 생명존중 교육을 병행해 가정과 학교의 안전망을 촘촘히 짠다.

전북교육청은 '마음이지(EASY) 검사'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연계해 고위험군 학생을 선별하고, 전문상담교사와 위(Wee)클래스·위(Wee)센터, 병원형 위센터를 잇는 전문 치료 시스템을 상시 가동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경찰·소방·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학생 생명지킴 전담반(TF)'을 구성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고, 전북형 위기대응 매뉴얼 보급과 함께 사고 발생 학교에 대한 심리 안정화 지원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교육적 가치는 없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백승우 교수, 총장선거 출마

재정 1조원 달성 책임강의 4과목 공약


백승우 교수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가 제20대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나섰다.

백 교수는 출마 선언을 통해 대학의 재정 기반 확충과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전북대 미래비전 1·2·3·4'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미래비전 1·2·3·4'는 △대학 재정 규모 1조 원 달성 △교수 1인당 자율연구비 최대 2,000만 원 지원 △지속 가능한 대학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365억 원 확충 △연간 책임강의 수 4과목 조정을 통한 연구·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고 있다.

이번 공약은 재원 조달 능력을 극대화해 확보된 예산이 현장의 실질적인 연구와 교육 환경 개선으로 직결되도록 설계됐다.

백 교수는 '공감·공정·공존'의 3대 가치를 대학 운영 기틀로 제시했다.

구성원의 현장 목소리를 면밀히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학내 신뢰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초학문과 응용 연구의 균형 발전, 단과대학 및 지역 캠퍼스 특성화를 통해 전북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도약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우 예비후보는 "단순한 외형적 성장을 넘어 확보된 재원이 교수의 연구 몰입과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으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공감·공정·공존'의 원칙으로 전북대의 위상을 1등 거점국립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 세계 클라이밍 최고 선수들, 군산에 모인다

장애·비장애 아우르는 월드클라이밍 개막

군산시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전 세계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이 하나 되는 감동과 도전의 중심으로 우뚝 선다.

군산시와 (사)대한산악연맹은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군산클라이밍센터(소룡동 솔꼬지1길 46)에서 '2026 군산 월드클라이밍(WORLD CLIMBING) 파라 시리즈 및 아시아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World Climbing)과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산악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파라 시리즈 27개국 294명, 아시아 시리즈 14개국 169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스포츠 이벤트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클라이밍의 최고 권위 대회인 '파라 시리즈'와 아시아 최강자를 가리는 '아시아 시리즈'가 동시에 열려 의미가 더욱 깊다.

대회 첫날인 29일에는 '파라 시리즈' 리드(Lead) 종목 예선전이 열리며, 30일 결승전이 치러진다.

이어 31일에는 '아시아 시리즈' 볼더(Boulder) 예선전과 스피드(Speed) 예·결선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는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볼더 준결승과 결승전이 잇따라 진행돼 짜릿한 박진감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월드클라이밍(WORLD CLIMBING) 시리즈' 및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기원에 발맞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인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군산클라이밍센터를 국제경기장 규격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스피드벽 4레인을 신축하고 세계 수준의 고난도 문제 출제가 가능한 리드벽을 증축했으며, 기존 실내 볼더링 경기장 정비와 함께 실내 리드·스피드벽을 신설하는 등 국제 규격에 맞는 클라이밍 경기장을 조성했다.

황보영 군산시 체육진흥과장은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는 선수들의 위대한 도전이 군산에서 빛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스포츠 도시 군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 경기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며, 클라이밍에 관심 있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현장을 찾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부안 내소사 가을 산사음악회' 개최

전통문화와 국악의 아름다움

부안군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부안 능가산 내소사에서 자연과 사찰, 공양과 울림이 함께하는 '2026년 부안 내소사 가을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안군 등이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는 '빛의 순례, 꽃이 되다'를 주제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전통문화와 국악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음악회는 강한준 지휘자가 이끄는 다음국악관현악단의 연주를 중심으로 '근원(Root)', '번뇌(Klesha)', '깨달음의 여정', '빛의 회향' 등 네 가지 주제로 펼쳐진다. 타종과 법고 연주를 비롯해 승무와 바라춤, 창작무용과 모듬북, 대금 연주, 테너·소프라노 공연, 판소리와 서양 합창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전통 국악의 깊이와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가 어우러져 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내소사 종무소 또는 템플스테이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기행' 참여 예술인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2026 예술인역량강화재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8일 운영하는 '함께하는 예술기행'에 참여할 도내 예술인 30명을 26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참여 희망자는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jbart2024@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함께하는 예술기행'은 서울에서 진행되며, 교통비와 관람료, 중식비, 여행자보험료 등 참가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재단은 도내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기획전시와 대형 뮤지컬을 관람하며 동시대 문화예술의 흐름과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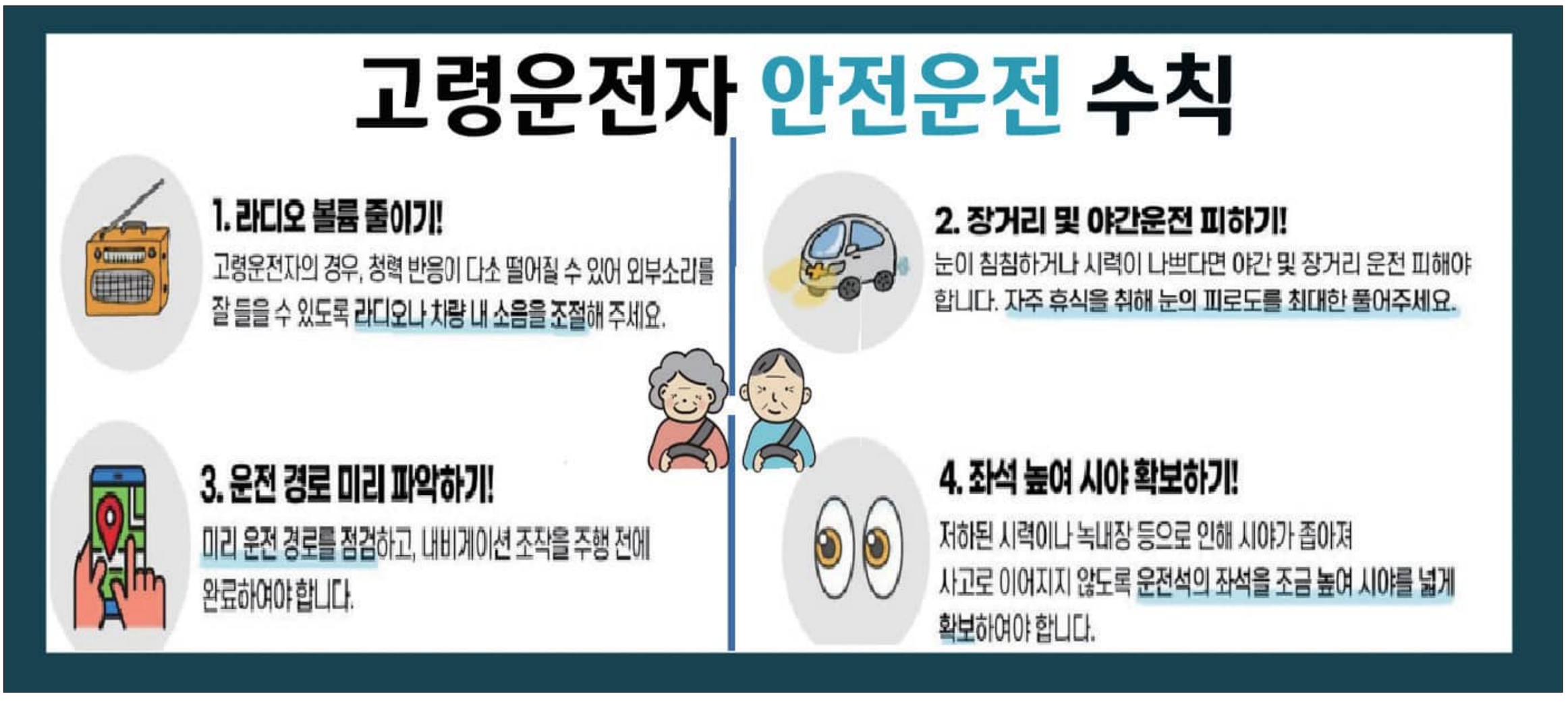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현장 탐방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의 기획전시 '스페인 미술 500년: 빛과 어둠의 연대기'와 샤롯데씨어터의 뮤지컬 '겨울왕국' 관람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전시 관람에서 스페인 미술의 시대별 흐름과 작품 배치, 조명 등 전시 공간의 구성과 연출 방식을 살펴보고, 뮤지컬 관람을 통해 국내 초연작의 무대 구현 방식과 최신 무대 기술, 음악과 시각적 요소가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공연 연출을 경험할 예정이다.

최영규 사무처장은 "이번 예술기행이 도내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과 새로운 표현 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창작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예술인복지증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정읍시, 고액·상습 체납 집중 징수… 유형별 대책 추진

정읍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7일 유호연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징수 실적이 부진한 7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 채권 추심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법정요건에 따라 번호판 영치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유형과 납부 여건을 고려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호연 부시장은 "가능한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

군산시는 28일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밀폐공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관내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맨홀, 저수조, 하수처리시설, 양돈농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고, 담당자와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시 소관 시설 담당자와 용역·위탁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관내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의 사업주, 관리감독자 및 작업근로자, 양돈농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신효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차장은 △밀폐공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밀폐공간 작업 절차 및 안전기준 △질식재해 사례와 예방대책 등을 현장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백운초 안전건설국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사전에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 수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련 교육과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5만원 장보면 1만원 환급 정읍 샘고을시장, 11월 2일 행사

정읍시는 오는 11월 2일 샘고을시장에서 당일 구매 고객에게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 샘고을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금액이 5만원 이상 9만원 미만이면 1만원, 9만원 이상이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샘고을시장상인회 사무실 1층 고객쉼터에서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참여는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대리 환급은 불가하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당일 물품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시민들에게는 알뜰한 장보기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한뜻"

군산시 등 서해안권 5개 시군 공동메시지 5대 과제 발표



<사진=군산시>

군산시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공동메시지 및 5대 과제 발표' 행사에 참석해 서해안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개별 지자체 차원의 요구를 넘어 서해안권 5개 시군(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영광군, 함평군)이 서해안철도를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삼고 함께 대응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결집된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문화부시장, 부안·고창·영광·함평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4명 등 60여 명이 참석해 뜻을 모았으며, 서해안철도 공동메시지 낭독과 5대 과제 발표가 진행됐다.

5대 과제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공동대응 △노선·역세권 등 사업계획 공동수립 등이 담겼다.

서해안철도(군산 새만금~목포)는 총연장 약 110km, 총사업비 4조 7,919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5개 시군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한 공동 연구와 지역발전 전략 마련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군산 이남 서해안은 철도가 없는 유일한 해안"이라며 "4차 계획에서 추가 검토로 밀린 사업을 5차 계획에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5개 시군의 첫 번째 과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모아복합센터' 12월 첫 삽

임신·육아·아픈아이 돌봄 등 복합 거점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28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동 일원에 들어서는 '다이로운 모아(母兒)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를 끝마치고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모아복합센터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한 공간에 집약해 부모와 아이가 한 번에 필요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통합 거점 공간이다.

시는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건립의 물꼬를 텄다.

센터는 익산시 신동 125-1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88.5㎡ 규모로 세워진다. 2028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새롭게 들어설 모아복합센터는 층별 맞춤형 특화 공간으로 꽉 채워진다. △1층에는 '아픈아이 돌봄센터'가 들어서고 △2층에는 '실내 키즈카페'와 양육자들의 교류 공간인 '부모 쉼터'가 자리한다.

이어 △3층에는 '모자보건센터'와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센터'가 통합 배치되며 △4층에는 '맘스클리닉'과 올바른 양육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실'이 들어선다.

센터가 문을 열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임신·출산 지원과 육아·돌봄 연계 서비스가 한 건물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져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시공 과정의 안전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명품 아동친화 도시 익산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확대

연말까지 2단계 입주기업 수요조사

군산시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를 4만 평에서 8만 평으로 넓히고, 2단계 확산부지에 들어올 기업을 찾기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1단계 부지는 11개 기업의 공장 준공이 이어지며 2,3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진행 중이다.

수산식품단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집적화해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입주 수요 증가에 맞춰 지난 7월 새만금개발청 고시를 통해 4만 평을 추가 확보하며 총 8만 평 규모의 집적화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제2확산부지와 381억 원 규모 해수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 내부 입주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기업별 투자 규모와 입주 희망 시기 등 실수요를 반영한 공급계획을 마련해 2027년 상반기 중 본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확산부지는 건축허가와 사업 추진이 원활한 대로변 인접 필지를 우선 분양하고, 입주 희망기업의 투자계획에 맞는 필지별 면적과 공급 규모를 구체화해 신규 투자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스마트 수산가공센터 내부 공공임대시설에 대한 입주 수요도 함께 조사한다.

센터에는 △개별(냉동)창고를 포함한 772~850㎡ 규모의 스마트 HACCP 기반 아파트형 가공공장 4개소 △아이디어 창업형 인큐베이터 시설 8개소 △지역특화 가공 및 공공 OEM 스마트팩토리 자동화공장 1개소가 조성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로 입주 희망기업의 특성을 파악해 구체적인 입주·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최대 25% 혜택

소비 활성화 기대

익산시는 오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열리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다이로움 결제금액의 5%를 추가 환급하는 특별할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더 많은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월 구매한도를 조정한 상황에서, 혜택 축소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을 보완하고 지역 상권을 북돋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인 국비 7억 4,100만 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중 다이로움으로 결제한 금액의 5%를 별도 신청 없이 결제자에게 추가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인당 최대 30만 원 결제액까지 적용돼 최대 1만 5,000원의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충전금 결제는 물론 정책수당 등 지급형 상품권 결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가 환급금은 결제 취소 내역 등을 면밀히 검증한 뒤 오는 12월 4일 일괄 지급된다. 특히 특정 정책지원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체감 혜택은 최대 25%까지 치솟는다. 치킨로드와 청년몰, 다이로움 택시 등에서는 기본 적립 10%에 정책지원금 10%, 이번 특별할인 5%가 모두 더해져 최대 25%의 파격 할인을 누릴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역시 기본 혜택과 추가 할인을 합쳐 최대 20%의 혜택이 주어진다.

추가 혜택 적용 대상은 치킨로드 8곳, 착한가격업소 39곳, 청년몰 13곳 등 총 60개 매장과 다이로움 택시 1,000여 대에 달한다. 지역서점 25곳 및 글로벌문화관 3곳은 기본 혜택 10%에 이번 특별할인 5%가 더해져 총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알찬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이로움 앱 공지와 알림톡, 시 공식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보건소, 전북 유일 장관 표창

지역 주민 건강증진 기여

정읍시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소는 2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보건소 설립 80주년 기념행사'에서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보건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단체 16개 기관과 개인 4명이 선정됐으며, 정읍시보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단체표창 수상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정읍시보건소는 1959년 정읍군 보건소 개소 이후 67년간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예방접종과 국가암검진, 치매 조기검진 등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힘써왔다.

이번 수상은 주민들과 함께하며 축적해 온 공공보건서비스의 성과와 지역보건 발전에 대한 기여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질병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힘써온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폭설 대비 현장훈련 실시

경찰서·소방서 등 참여

군산시는 28일 성산면 군도 16호선(산업단지~창오초등학교) 일원에서 겨울철 폭설 대비 재난상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2026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강설 및 결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시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주관기관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총괄과)를 비롯해 관련 부서(건설과, 교통행정과, 성산면)와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은 군산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5cm 이상의 기습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군도 16호선 다리실재 인근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면서 양방향 차로가 전면 통제되고 차량이 고립된 가상 상황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참여기관들이 △군도 16호선 약 2km 구간 양방향 교통 전면 통제 및 국도 27호선 우회 유도 △고립차량 회차 및 사고차량 견인 조치 △부상자 응급구조 및 운전자 대피 등 실전과 같은 신속한 복구작업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도출된 보완사항을 겨울철 제설 대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장애인 취업지원 체계 강화

익산시가 장애인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익산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익산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연계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기관별로 분산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결해 장애인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같은 상담을 반복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있다. 취업 준비부터 일자리 연결, 직장 적응과 고용유지까지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장애인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맞춤형 취업지원에 나선다.

직업상담과 구인처 발굴, 취업 알선은 물론 취업 이후 직장 적응과 고용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도 상호 연계해 장애인의 특성과 희망에 맞는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단순히 취업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의 전문성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과 조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수협, 조합원 수술·치료비 지원



<사진=군산수협>

군산시수협은 수협재단에서 추진하는 '2026년도 어업인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군산시수협 조합원 3명에게 수술·치료비 총 6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액의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촌지역의 의료복지 향상을 통해 살고 싶은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각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수협 조합장 김광철은 "이번 지원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협재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 생활인구, 재방문 '전북 1위'

체류·숙박·소비 등 전북 인구감소지역 중 최고 수준 기록

김제시가 전북특별자치도 10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생활인구의 재방문율과 평균 체류일수, 숙박일수, 카드 사용액 등 4개 주요 지표에서 1위를 기록하며, 방문객의 지속적인 체류와 지역 소비가 활발한 도시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5년 전북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에 따르면, 김제시의 3개월 내 재방문율은 53.0%로 전북 평균 35.3%보다 17.7%p 높아 도내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류일수 역시 4.3일로 전북 평균 3.0일보다 1.3일 길었으며, 평균 숙박일수도 5.0일로 전북 평균 3.4일을 웃돌아 방문객의 체류 지속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다.

특히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5만 6천원으로 전북 평균 11만 8천 원보다 약 32% 높아, 전북 10개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높은 소비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33.4%로 전북 평균 31.2%를 상회했다.

김제의 2025년 월평균 생활인구는 약 33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4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방문객 규모뿐 아니라 재방문과 체류, 소비 등 생활인구의 질적 특성을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평선생명도시 김제 시민제도'를 통해 관외 주민의 디지털 시민증 발급과 혜택 가맹점을 확대하고, 캐시백 지원사업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지역 내 소비와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슬로우 in 김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비롯한 체류형 관광·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전주·익산·군산 등 인근 생활권 주민의 일상적인 방문을 늘려 사계절 지속 가능한 생활인구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인구 증가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방문·체류·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통계는 김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비교적 오래 머물며, 지역에서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김제만의 생활인구 정책을 통해 방문이 체류로, 체류가 소비와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 등 등록인구에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합산한 개념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사랑상품권, 최대 22% 혜택

11월 15일까지 특별 이벤트

부안군은 전국적 소비 진작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관내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 시 추가 캐시백 5%를 지급하는 특별 할인 정책을 펼친다.

전국적인 소비 촉진 분위기에 맞춰 부안사랑상품권 혜택을 대폭 확대해, 소비자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관내 지역 상권으로의 소비 유입을 유도하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군민의 가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부안군이 11월 2일부터 시행하는 부안사랑상품권의 캐시백 제도 개편과 맞물려 혜택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부안군은 기존 구매 시 할인받는 선할인 방식에서 결제할 때 적립되는 캐시백 구조로 운영 방식이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사 기간 중 부안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기본 캐시백 12%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가 캐시백 5%가 더해진다. 여기에 9월 14일부터 추진해 온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추가 5% 적립 혜택도 중복 적용된다. 이에 기간 내 착한가격업소에서 부안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군민은 결제금액의 최대 22%를 캐시백으로 지급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부안군은 이번 특별할인을 계기로 부안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연말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김제시가 연말을 앞두고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상담은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 오후 3시~4시까지 시청 민원실무심의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이메일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아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사항을 점검하거나 평소 궁금했던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열 세정과장은"연말을 맞아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세금 문제를 마을세무사와 함께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김제, 국가예산 확보 '총력' 2(題)

고창군, 국회 방문해 사업 건의

심덕섭 고창군수가 국회 예산심사를 앞둔 28일 국회를 방문해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먼저, 안규백 의원을 만나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공모사업' 선정 지원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학교와 지역자원을 연계해 차별화된 농촌형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전국유일의 고인돌 박물관인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지역문화 성장거점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만나 '차세대 전력기술 시험·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의 국가 차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을 만나 귀농인구 증가 및 기업유치에 따른 청년층 주거 수요를 뒷받침할 '해리면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사업도 적극 건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고창군의 핵심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김제시가 지역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 화두로'국가예산 확보'를 내건 가운데, 28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어 2028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번 보고회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주재로 이현서 부시장, 국소장,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신규사업 23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필요성 등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내실을 더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피지컬AI 기반 도로 노면표시 무인화 시공 및 스마트 통합관리 기술개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새만금 제2 산업단지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이 있었으며, 향후 논리를 보강해 설득력을 확보하고 국가예산 반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치밀한 논리 보강에 힘써 국가예산 확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력을 발휘해달라"며 "국가정책과 발맞추면서도 김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국도비 확보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체육꿈나무 지원

11월 2~4일까지 접수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지역 체육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학생 선수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 체육꿈나무 격려금 지원사업'대상자를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김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분야 재학생 중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1~3위 수상자다.

격려금은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으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의 노력과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체육활동을 격려할 계획이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체육꿈나무 격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우수 체육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55명의 학생에게 격려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체육 분야에서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2027년 세입예산 추계 심의

부안군은 28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부안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분석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세입 예산 심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을 의결하는 법적 기구로, 변호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공무원 등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안)'가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올해 최종 징수 전망액 및 내년도 지방세 수입 전망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원안 가결됐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2027년 부안군 최종 군세 세입 예산 추계액은 총 343억 1,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6년 당초 본예산(349억 8,700만 원) 대비 약 1.9%(6억 6,800만 원) 감소한 규모다. 주요 요인으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 여파로 지자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가 줄어든 점과 담배소비량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세입 전망액 산출을 통해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예산 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농촌개발대학, 미래농업을 위한 AX전략 특강 '성료'

고창군 고창농촌개발대학이 지난 27일 농업인회관 3층 대강당에서 교육생과 지역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농촌개발대학 제2차 공통특강'을 성공적으로 열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미래농업을 위한 AX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 농업의 혁신 방안과 미래 도약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어 전주기상지청 공종웅 기후서비스과장은 '농업인을 위한 기상·기후교육'을 실시해 최근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현상이 영농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맞춤형 실천 방안을 안내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강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AI 기반 미래 농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고,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길잡이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제16회 부안가을애 국화전시회 30일~11월 8일 개최

부안군은 오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해뜰마루 자연마당에서 '제16회 부안가을애 국화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화, 부안의 정원에 스며들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국화의 아름다움과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전시장에는 다양한 국화 조형물 24종을 비롯해 국화분재 80점과 가든멈 등 풍성한 국화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국화로 꾸민 산책길과 포토존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개회식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국화가요제,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국화예술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진다.

행사장에는 국화와 함께 추억의 사진찍기를 비롯한 12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부스를 운영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화훼농가의 국화와 부안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직거래장터와 국화빵, 음료 등 먹거리 부스를 마련해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국화전시회가 아름다운 국화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져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가을의 여유를 만끽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민관 협력 강화

지역 생산·소비·금융 사회연대경제·복지 연결

고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단체와 단계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농업인 소득 증대, 생활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분야별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창군은 농협 및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사회연대경제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상생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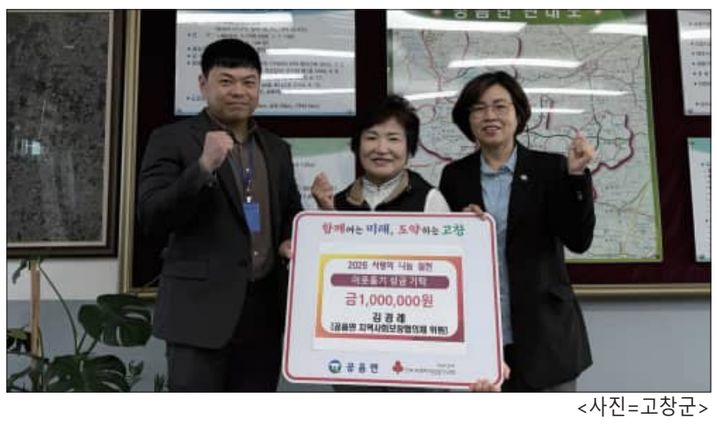
먼저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와 관내 5개 지역농협, 전북은행 등 6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농업인 및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 주민 금융 편익 증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고창사회연대경제협의회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확대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돌봄 등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고창군은 이번 단계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 금융, 사회연대경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 지역경제에 다시 환류되는 선순환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단계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 기반을 마련한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고 생활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 공음면 지사협 김경례 위원, 성금 기탁

고창군 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경례 위원은 26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경례 위원은 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가정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김경례 위원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청년축제' 30일 개막

가을 피크닉부터 청춘 운동회까지

김제시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김제실내체육관 앞 잔디광장 일원에서 '2026 김제청년축제, 펼쳐라! 청년의 판(P.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년의 열정(Passion)과 도전(Action)이 미래(Next)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아, 청년이 주도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특히, 청년축제기획단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개성을 축제장 곳곳에 담아냈다.

축제 첫날인 30일에는 '가을날 피크닉'을 주제로 잔디광장에서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버스킹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둘째 날인 31일에는 '청춘 타임머신 운동회'를 통해 함께 뛰고 웃으며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제의 농업과 지역 특색을 담은 놀이로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협동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라이브 공연으로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축제가 청년의 아이디어와 지역의 매력이 만나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자신의 열정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 주도의 참여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군, 쌍치 재해위험지구 정비 본격화

쌍계리·금평리 일원 299억 투입
소하천 정비·배수시설 확충



<사진=순창군>

순창군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겪어온 쌍치면 일대의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총 299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28일 쌍치체육관에서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오수환 순창군의회 의장, 장승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쌍치면 쌍계리와 금평리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9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과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의 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쌍치면 일대는 그동안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재해예방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쌍치지구를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만석천과 박시나무골천 등 소하천 2개소 총 1.89km 정비를 비롯해 우수관로 0.56km 정비, 분당 133㎥의 빗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 설치, 1만 6,500㎡ 규모의 우수저류조 조성 등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하천 정비와 배수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해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집중호우 시 하천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거지역에 유입되는 빗물을 신속하게 배출하는 한편, 단시간에 집중되는 빗물은 우수저류조에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과 배수시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쌍치면 소재지와 인근 주거지역의 침수 위험을 낮추고,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 주민 생활 기반시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의 재해 대응 능력을 높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들이 자연재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우석대, 청년·특성화고 취업역량 키운다

맞춤형 NCS 취업교육 추진
면접·자소서 컨설팅도 지원

완주군이 우석대학교와 손잡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 청년과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완주군과 대학의 상생 협력 사업으로, 대학이 지닌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해 취업 준비생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고자 마련했다.

군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수요를 발굴하고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며, 우석대학교는 실전형 교육과정 운영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맡는다.

맞춤형 교육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먼저 첫발을 뗐다. 한국수소에너지고등학교에서는 직무핵심인 수리·문제해결·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초 이론과 실전 면접 교육을 펼쳐 학생들의 취업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완주군민과 우석대학교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무료강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강좌는 11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우석대학교 정공관 512호에서 운영된다. 교육은 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의사소통능력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며,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면접·자기소개서 컨설팅과 2027년 2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도 제공해 교육 이후에도 취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완주=김명곤기자

농촌지도자남원시연합회 이백면 일원 농경지 환경정화

농촌지도자남원시연합회(회장 안명엽)는 27일 남원시 이백면 일원에서 회원들과 함께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영농기 이후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활기찬 농촌 마을을 가꾸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농촌지도자남원시연합회 회원들은 이백면 일대 농경지에 방치되기 쉬운 농약 빈병과 각종 영농 포장재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한 뒤, 종류별로 분류 및 정리 작업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안명엽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깨끗한 농촌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농촌지도자남원시연합회는 깨끗한 농촌과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데 앞으로도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김연주 소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옥천인재숙, 2027학년도 입사생 200명 선발

중등 60명·고등 140명 모집
순창군 거주 1년 미만도 자격

(재)순창군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가 오는 11월 11일까지 '2027학년도 옥천인재숙 입사생' 200명을 모집한다.

옥천인재숙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순창군이 출연한 (재)순창군옥천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기숙형 방과후 학습시설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200명으로, △중학교 2학년 60명 △고등학교 1학년 50명 △고등학교 2학년 50명 △고등학교 3학년 40명이다.

응시 자격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보호자와 학생이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에 주어진다. 또한, 작년도 조례 개정에 따라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학생도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입사 신청은 오는 11월 11일까지 옥천인재숙 행정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선발고사는 11월 21일 실시된다. 시험시간은 중2, 중3학년은 오후 2시, 고등학교 1, 2학년은 오후 6시에 시험을 시작하며, 응시자는 각각 오후 1시 30분과 오후 5시 3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고등학생 시험은 토요일 공동교육과정 수강과 학술제 등 교내 활동 일정을 고려해 저녁 시간에 진행한다.

선발고사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으로 구성되며, 총점 150점 이상인 학생 중 고득점자순으로 입사생을 최종 선발한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1223필지 결정·공시

순창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223필지다. 군은 지난 9월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절차를 마쳤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순창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순창군청 민원과 토지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오는 12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산단 28억 투입 미디어 특화거리 조성

산단2로·7로 1.58㎞ 구간 정비
미디어월·경관조명·쉼터 설치

완주군이 완주산업단지 일원에 28억여 원을 투입해 미디어 특화거리와 보행 쉼터를 갖춘 '문화선도산단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며 노후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28일 완주군은 최근 군청 4층 전략회의실에서 '문화선도산단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은 총사업비 28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완주산업단지 내 산단2로 및 7로 일원 1.58km 구간에 보행환경 개선, 미디어 특화거리 조성, 경관조명 및 쉼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고회에서는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의 설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보도블록 구간의 아스콘 포장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경관조명을 활용한 야간 거리환경 조성, 미디어 월 및 쉼터 설치 등 주요 설계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난 4월 '산업단지 정책 해커톤'에서 제안된 야간 보행 환경 개선과 반려동물 친화 시설 설치 등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번 설계에 적극 반영했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착공에 들어간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활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날 성료

남원시는 27일 오후 4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남원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현철)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존 '요양보호사의 날'에서 어르신 돌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운전원 등 모든 직종의 종사자를 아우르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러한 의의를 반영해 참석 인원 역시 전년도 800여 명에서 올해 900여 명으로 확대 진행됐다.

행사는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립농악단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종사자에 대한 표창 수여 △레크리에이션 및 초대 가수 축하 무대 순으로 진행됐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2026년 통합돌봄 복지 흐름에 맞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차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의 맛, MBC 다큐 '셰프의 DNA'서 조명

류수영·상훈 드장브르 셰프 촬영
어란·흑돼지 하몽·씨간장 등 소개

남원시가 MBC 특집 다큐멘터리 '셰프의 DNA'를 통해 남원의 전통 식재료와 음식문화,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국 시청자에게 선보인다.

셰프의 DNA는 한국에서 태어나 세계 각지에서 자신만의 요리 세계를 만들어 온 셰프들이 한국의 식재료와 향토음식을 만나 새로운 한식을 만들어 가는 글로벌 K-FOOD 프로그램이다.

배우 류수영과 벨기에에서 활동하는 상훈 드장브르 셰프가 함께하며, 태어난 곳의 맛과 살아온 곳의 맛이 만나 탄생하는 새로운 요리를 통해 한국 음식의 가능성을 조명한다.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남원에서 진행된 촬영에서는 서도역과 광한루, 함파우소리체험관 등 지역의 주요 장소를 배경으로 남원의 문화와 음식 이야기를 담았다. 산내면의 어란과 운봉의 지리산 흑돼지 하몽을 비롯해 씨간장·씨된장, 미꾸라지 등 남원의 식재료와 향토음식도 소개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남원의 맛을 소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식재료와 전통적인 손맛을 세계적인 셰프의 시각으로 재해석한다는 데 있다. 남원에서 발견한 맛을 바탕으로 완성한 '상훈 드장브르의 남원 한상'은 벨기에 현지 레스토랑에서도 새롭게 재해석돼 '남원의 추억'이라는 메뉴로 가족과 손님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원의 음식문화가 지역을 넘어 세계의 식탁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여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이번 방송이 춘향 스토리와 광한루 등 문화자원에 더해 남원의 식재료와 음식문화를 새로운 도시 매력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방송을 통해 높아진 관심을 지역 음식점 방문과 체류 관광으로 연결하고,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대표 먹거리 발굴과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MBC 특집 다큐멘터리 '셰프의 DNA'는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 1부 첫 방송을 시작으로, 11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에 2부가 방송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운봉읍 황산토종정육식당 복지 성금 1000만원 기부

남원시 운봉읍에 황산토종정육식당 신명철대표가 지역사회를 위한 1,0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성금은 운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500만 원이 쓰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미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에도 500만 원이 전달돼 운봉읍 출생아 출생축하금으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신명철 대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께 받아온 사랑과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운봉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홍미선 운봉읍장은 "기탁해주신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의미있게 사용해 온정이 넘치는 운봉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시설공단, 익산도시관리공단과 협력 강화

체육시설 교차점검·실무교류 협약
안전관리·우수사례 공유 확대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 체육시설팀은 30일 익산시도시관리공단과 시설 교차점검 및 교류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속적 교류·협력을 통해 시설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서 실시한 1차 교차점검에서 참여직원 만족도가 97.8~1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내모니터 운영, 설비 임대 운영방식,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에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교차점검과 실무교류를 통해 시설 운영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설·설비 안전점검 및 정기 교류 △시설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직원 교육·견학 등 역량 강화 △체육시설 운영 및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이다.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7년부터 정기적인 시설 교차점검과 실무교류를 추진하고, 익산시도시관리공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설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희수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시설관리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개선과제를 실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우리동네 단골약국' 약물 오남용 예방

완주군이 군민들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맞물린 '우리동네 단골약국' 다제약물관리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우리동네 단골약국'은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어르신과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복약 방법을 안내하고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통합돌봄망과 긴밀히 연결해 단순한 복약 지도를 넘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 일상 전반을 함께 돌보고 있다.

사업은 자문약사와 군 통합돌봄팀 전담 간호사가 2인 1조를 이뤄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넓은 군 면적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로 위촉된 3명의 자문약사가 꼼꼼한 현장 밀착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병의원을 오가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받아 먹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 어르신은 만성 통증 탓에 여러 의원을 찾았다가 유사한 진통제와 위장약을 겹쳐 복용하고 있었으나, 자문약사의 정밀 상담을 거쳐 중복 약물을 덜어내고 안전한 복약 지도를 받았다.

유지숙 경로장애인과장은 "방문 복약상담은 잘못된 약물 복용 습관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숨은 건강 문제와 돌봄 수요까지 두루 살피는 소중한 통로"라며 "자문약사를 더욱 확충하고 통합돌봄 연계를 단단히 다져 군민 모두가 정든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무주 구천동 가을 행사 낙화놀이·어사길 걷기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무주구천동에서 전통과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가을 행사가 펼쳐진다.

(사)무주군관광협의회는 오는 31일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내 계곡에서 안성 전통 낙화놀이'를 선보이고, 내달 1일에는 '구천동 어사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주군관광협의회가 주최하고 구천동관광연합회·구천동관광특구상인연합회가 주관하며, 덕유산국립공원이 후원한다.

10월 31일 펼쳐지는 낙화놀이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전통 불꽃의 감동을 선사한다. 낙화놀이는 무주 안성면 두문리 낙화놀이보존회 회원들이 대대로 전승·보존해 온 전통놀이로, 매년 무주산골영화제와 무주반딧불축제 등 주요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해 왔다.

11월 1일에는 '구천동 어사길 걷기 행사'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당일 오전 9시까지 무주구천동 다목적광장 입구에서 집결한 후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한다. 어사길을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임실군은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부적정 처리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폐기물 배출단계부터 처리 과정까지 전과정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완료된 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과거 관련법령 위반이력이 있거나 위반우려가 있는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제4회 '진안문화원의 날' 전북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확장

진안문화원(원장 우덕희)은 28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하는 제4회 진안문화원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진안문화원의 날은 지역 고유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 14개 시·군 문화원 임직원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대거 참여하여 진안을 넘어 전북 전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나누는 광역 교류·화합의 장으로 외연을 대폭 확장했다.

이날 행사는 실버합창단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지역 문화예술 진흥 유공자에 대한 군수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1층 문화홀에서는 진서회(서예), 도예교실, 서각교실 등 문화원 수강생들의 한 해 결실을 선보이는 작품 전시회가 열려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덕희 진안문화원장은 "진안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지키는 데 뜻을 모아주신 전북 14개 문화원 가족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진안의 역사문화 기록과 군민 맞춤형 문화교육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민주당 예산·정책 간담회

국가예산 확보 국가계획 반영 지원 요청



장수군은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장수군>

장수군은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핵심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권과 행정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희승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훈식 장수군수, 문재표 군의회 부의장 및 군의원, 군 간부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수군은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과 공모사업,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정부 정책 및 국가계획 반영,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국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장수 양수발전소 유치 △피지컬 AI 기반 축산로봇 실증클러스터 구축 △토옥동계곡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남원~장수 고속도로 건설 등 총 11건이 제시됐다.

특히 교통 여건 개선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 산림휴양자원 확충 등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장수군의 주요 현안사업이 실직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측면도 면밀히 살펴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국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그동안 장수군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주신 박희승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건의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군에서도 필요한 준비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착한가격업소 최대 22% 할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무주사랑상품권 결제 시 전 가맹점 10% 추가 적립

무주군 '착한가격업소'들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하 소비축제 10.29.~11.15.)' 에 동참,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착한가격업소'는 무주군이 지역 내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지역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업소, 가격 인하 또는 동결 등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업소를 지정한 것으로, 무주읍 23곳, 무풍면 2곳, 설천면 6곳, 적상면 2곳, 안성면 3곳 등 총 36곳(식당, 미용, 숙박 등)이 운영 중이다.

이들 업소는 소비축제 기간 중 무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페스티벌 적립(5%)과 착한가격업소 적립(5%)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시 선할인 12%를 포함해 최대 2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은 소비축제 종료 후에도 12월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착한가격업소 이용객을 위한 추가 적립 5% 지원사업을 지속할 방침으로, 가계경제는 물론 지역 상권 경영 안정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소비축제 기간(10.29.~11.15.) 모바일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용 고객은 충전 시 받는 12% 선할인에 결제 시 5% 적립(총 17%)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목소리 반영

농식품부 추진단과 간담회 제도 개선방안 논의

진안군은 28일 사통팔달센터 커뮤니티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장을 비롯한 농식품부 관계자와 진안군 관계자,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소상공인 대표 등 지역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살펴보고, 실거주 확인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 현황 등을 공유했다.

특히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기본소득 사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진안군은 면 지역 주민의 로컬푸드직매장 이용 제한 완화,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가맹점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간담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모바일스탬프 투어 '인기'

관광객 유치·상권 활기 효자상품

임실군이 운영 중인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관광객들의 꾸준한 참여 속에 지역 관광자원을 알리는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주요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고 스탬프를 획득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임실 곳곳의 숨은 명소를 알리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에는 현재까지 총 630명이 참여했다. 특히,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는 205명이 참여해 전체 참여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 현장 홍보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실제 참여로 이어진 것이다.

군은 축제기간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모바일 스탬프 투어 참여 방법과 주요 방문지를 안내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임실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신규 참여자를 확보하는 데 힘썼다.

군은 축제 이후에도 참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거점에 홍보 배너를 설치해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른 지자체에도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홍보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아울러, 군 공식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임실의 주요 36개소를 방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스탬프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된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스탬프 투어 앱을 설치한 뒤 '임실군 모바일 스탬프 투어'에 참여해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면 된다. 스탬프 획득 개수에 따라 스탬프 5개를 획득하면 1만원 상당, 10개 이상은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해 관광의 재미와 참여 혜택을 더했다.

군은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관광객의 개별 관광지 방문을 넘어 지역 내 여러 명소를 연계해 둘러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객의 이동 범위가 넓어지고 체류시간이 늘어나면 음식점과 카페 등 주변 상권 이용도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청년센터·청년 카페 이름 공모

시설 조성 취지나 의미 살린 독창적인 명칭 제안

무주군이 지역 청년의 성장·교류와 휴식·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읍 읍내리 일원에 조성 중인 '청년센터'와 '청년 카페'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공고일)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둔 14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일까지 공고문에 기재된 QR코드, 또는 전자메일(neo302@korea.kr)을 통해 신청서(응모 부문, 제안 명칭, 의미 및 제안 이유 등) 접수하면 된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도전과 교류, 성장, 머무름의 의미를 담아 공공시설로서 의미가 명확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을 지향한다. '청년카페'는 휴식과 만남, 대화, 일상의 여유를 담아 부르기 쉽고 기억에 남는 감각적인 이름이면 된다.

접수된 명칭은 군청 누리집과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선호도 조사 후 시설 취지 적합성과 창의성, 친근성, 활용성, 지역성 및 기존 상표·시설명과의 혼동 여부 등을 검토 후 11월 중 발표(누리집 게시)할 예정이다.

부문별 최다 득표자에게는 청년카페 이용권 5만 원권을, 최종 선정자 각 1명에게는 10만 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일인이 두 부문에 선정되면 20만 원 이용권이 지급되며 동일 부문에서 최다 득표, 최종 선정자가 되면 합산 10만 원 이용권이 지급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의회, 전국 이통장 연수원 임실 유치 촉구

임은두 의원 대표 발의

임실군의회는 지난 26일 제35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이통장 자치행정 연수원 임실 유치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임은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전국 이통장 자치행정 연수원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수원이 임실군 관촌면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 공식 반영 및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은두 의원은 "전국 10만여 명의 이·통장은 대민 행정의 최접점에서 현장 행정을 책임지는 핵심 주체이나, 이들의 체계적 교육을 전담할 국가 차원의 연수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가 차원의 전문 교육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실군이 계획 중인 전국 이·통장 자치행정 연수원이 건립될 경우, 전국 이·통장의 전문교육과 교류를 위한 국가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교육·연수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실군이 전국 이·통장 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제3회 마을공동체 한마당 성황리

진안군은 지난 27일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일원에서 '진안군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마을만들기로 키운 농촌서비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주민 주도의 농촌서비스를 통해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를 공유하고,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온 주민과 활동가 등 300여 명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진안군수는 2026년 그린빌리지 사업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백운면 번덕마을과 우수마을인 부귀면 신덕마을, 하수항마을, 진안읍 암곡마을, 외기마을, 백운면 동산마을을 시상했다.

또한 참살기 사업 최우수마을인 백운면 원노마을과 우수마을인 동향면 추동마을, 진안읍 노계2마을에 상을 수여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진안군과 노영권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마을만들기로 키운 주민의 힘을 바탕으로 이웃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41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장수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4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검증을 거쳐 처리하며, 군은 그 결과를 반영해 12월 21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공시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토지 가격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쓸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완주 둔산리 5개 어린이집 장터 열고 수익금 기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자리한 5개 어린이집이 지역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장터를 열고 정성을 모았다.

아이와숲, 꼬마둥지, 꿈모아, 도담도담, 이쁘동이 어린이집은 최근 둔산리 우동공원에서 연합 벼룩시장(플리마켓)을 열고, 수익금 200만 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놓았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들이 연합해 기획한 나눔의 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더했다. 보육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나눔의 가치와 기쁨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었다.

장터에는 원아와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많은 주민이 동참해 따뜻한 손길을 건넸으며, 완주군 어린이집 연합회도 후원금을 보탰다. 모금된 성금은 지역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아동들과 함께 헌혈 캠페인

다솔가족봉사단 거리 캠페인 전개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7일 다솔가족봉사단 아동들과 함께 '생명나눔 실천, 함께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며 지역사회에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참여 아동들은 다솔지역아동센터에서 헌혈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직접 제작했다.

이어 도통동 물방개 놀이터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펼치며 직접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해 헌혈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남원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직접적인 생명나눔 활동 중 하나"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시민들도 헌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7일 다솔가족봉사단 아동들과 함께 '생명나눔 실천, 함께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남원시자원봉사센터>



군산팔마신협, 겨울 물품 기탁 2016년부터 꾸준한 나눔

군산시 경암동 행정복지센터는 군산팔마신협이 28일 '신협 온(溫)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기히터 2대와 이불 7채, 라면 20상자 등 150만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군산팔마신협은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인 '온(溫)세상 나눔 캠페인'을 통해 2016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에 기탁된 후원 물품은 관내 저소득 홀몸 노인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남현 군산팔마신협 이사장은 "이번 성품이 이웃들이 일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며 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수정 경암동장은 "기탁해 주신 물품은 소중한 뜻과 함께 필요한 분들께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새마을회, 정성 담은 고추장 1,000통 나눴다

어려운 이웃에 전달

김제시는 김제시새마을회가 28일 김제시민운동장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김제시협의회(회장 김수기), 새마을지도자김제시부녀회(회장 송연순), 새마을문고김제시지부(회장 손정권) 등 3개 단체 새마을회원 120여명이 참여해 이웃사랑 실천에 뜻을 모았다.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한자리에 모여 고추장 배합과 용기 포장 작업에 힘을 보태며 정성을 모았다. 이날 고춧가루 680근을 사용하여 2리터 용기 1,000통, 총 2,000리터의 고추장을 담갔으며, 완성된 고추장은 김제시 19개 읍·면·동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 1,000가구에 전달됐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신림면 지사협 홀몸어르신 등에 반찬 나눔

고창군 신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을규, 공공위원장 고현규)는 고령의 홀몸어르신 및 독거중년 남성 60세대에게 '마음담은 반찬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신림면 지사협은 지난 27일 200만원 상당의 고등어무조림, 생채 등 계절 맞춤 반찬(4종)을 정성껏 만들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전달하며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주거환경 등 불편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림면주민행복센터 공유주방이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어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반찬을 만들 수 있어 더욱 뜻깊다.

박을규 민간위원장은 "쌀쌀한 가을날씨를 맞아 정성 가득 준비한 음식이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만든 맛있는 반찬과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 샘초롱클럽하우스 강정 300개 만들어 나눔

정읍시는 지난 27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샘초롱클럽하우스에서 '마음을 잇는 달콤한 나눔, 건강강정 만들기' 행사를 열고, 참여자들이 함께 만든 강정 300개를 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를 넓히고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와 정읍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인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나눔 사업'의 하나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읍시자원봉사센터가 협력했다.

이날 샘초롱클럽하우스 회원 15명과 자원봉사자 10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2명 등 총 27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서로 협력해 정성껏 건강강정을 만들며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정인 기자



진안 정천면 농업정책과, 농가 찾아 구슬땀

진안군 정천면과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정천면과 진안군청 농업정책과 30여 명의 직원들은 28일 정천면 하초마을에 거주하는 고추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을철 수확이 끝난 고추밭은 고추 줄과 고춧대 수거, 지주목 철거 등 방대한 잔여 부산물 정리가 필요하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엄두를 내기 힘든 고된 작업이다. 이날 직원들은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밭 전반에 걸친 잔해물 수거 작업에 적극 나섰다.

산림과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거한 영농 부산물의 현장 파쇄까지 동시에 진행하여, 고질적인 문제인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가을철 산불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익산시지부, 장학금 기탁

익산시는 28일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익산시지부(협회장 임락생)가 시청을 방문해 (재)익산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4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익산시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협회 회원들이 농업 현장에서 맺은 지역사회와의 인연을 나눔으로 이어가고자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익산시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벼·논콩 병해충 방제 약제비 지원사업의 구매처를 기존 농협에서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소속 농약사까지 확대했다.

임락생 협회장은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도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과 마음을 모았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一事一言〉



연장자 우선인가, 공공질서가 우선인가. 완산수영장의 무법지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지인 챙기는 '샤워 부스 텃세'에 아침 운동시간 지옥으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공공체육시설을 찾는 도민들의 목적은 단 하나다. 건강한 신체와 쾌적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주시 완산수영장의 새벽 풍경은 건강한 활력이 아닌, 짙은 스트레스와 감정적 대립이 어른거리는 아수라장에 가깝다. 개장 시간인 오전 6시 전부터 길게 줄을 선 이용객들이 문이 열림과 동시에 탈의실과 샤워실로 몰려드는 혼잡 속에서, 일부 이용객들의 상습적인 '샤워 부스 자리 맡아주기' 관행이 대다수 이용객들의 아침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시설 내 불공정한 권력 작용과 질서의 부재다. 일부 이용객들이 자신이 사용할 샤워 부스뿐만 아니라 주변 샤워기까지 개인 수영바구니나 물품을 올려놓고 자리를 선점한 뒤, 뒤늦게 들어오는 지인들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정해진 강습 시간에 맞춰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수영장에 들어가야 하는 정규 강습반 회원들은 뻔히 빈 샤워기가 눈앞에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제 제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압적인 태도다. 불공정한 자리 선점에 대해 항의를 하면 일부 고령 이용객들은 "어른에게 버릇없다"거나 "먼저 온 사람이 챙기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그릇된 연장자 논리를 내세우며 도리어 화를 낸다. 여기에 지인들까지 세를 형성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건강을 위해 찾아온 일반 이용객들은 심각한 위압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사소한 일이 감정싸움 부르고 충돌 전주시와 시설 측 관리 개입 시급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수영장을 관리하는 당국의 소극 행정은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관리자를 투입해 단속하겠다"거나 "불필요한 개인 물품 반입금지" 등의 임시처방의 말만 되풀이할 뿐,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치된 사소한 갈등은 이미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이용객 간 물리적 충돌로 확대될 위험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친목 집단이나 연장자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원칙 아래 이용해야 하는 시민 모두의 자산이다.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예의는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기본적 권리가 지켜지는 테두리 안에서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행위에 '경노'라는 탈을 씌워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완산수영장 측은 더 이상 이용객 간 자율적 정화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실효성 있는 단속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강습반 회원과 자유수영 이용객의 입장 시간을 분산하여 혼잡도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샤워실 내 개인 물품 무단 방치 시 즉각 수거 조치하는 등 강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작은 샤워 부스 하나에서 시작된 불공정이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전주시와 완산수영장은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아 시민들의 상쾌한 아침을 되찾아주는 엄정한 관리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 독자투고 |

QR코드 속 숨은 함정, 신종 사기 '큐싱' 주의해야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식당 메뉴를 확인하고, 주차요금을 결제하거나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되는 QR코드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로 QR코드와 피싱(Phishing)을 결합한 신종 사기 수법인 '큐싱(Quishing)'이다.

큐싱이란 악성 QR코드를 이용해 가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 수법이다. QR코드는 겉모습만으로 정상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워 무심코 촬영했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공공장소에 부착된 정상 QR코드 위에 가짜 스티커를 덧붙여 악성 사이트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주차요금 납부, 공유 자전거·킥보드 이용, 택배 배송 조회, 무료 쿠폰 제공 등을 가장해 QR코드 촬영을 유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정부기관이나 기업 관계자를 사칭해 설문 참여나 자료 확인을 명목으로 QR코드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피해자가 연결된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계정 탈취와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큐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QR코드를 촬영하기 전 출처부터 확인해야 한다. 공공장소에 부착된 QR코드에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거나 훼손된 흔적이 있다면 이용을 피하고, 시설 관리 주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QR코드를 촬영한 뒤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공식 기관이나 업체를 사칭한 유사 주소는 아닌지 확인하고, QR코드 접속 후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파일이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셋째, 의심스러운 QR코드는 호기심으로 촬영하지 말고,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달받은 QR코드 역시 발신자의 신원과 전달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료', '긴급', '미납요금 확인' 등 사람의 호기심이나 불안감을 자극하는 문구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실수로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해당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고, 다른 안전한 기기를 이용해 금융회사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문의해야 한다. 비밀번호와 인증정보도 안전한 기기에서 변경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112)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상담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상담해야 한다.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거래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확인 한 번이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출발점이다. 편리함을 누리되 의심스러운 QR코드 앞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중함으로 큐싱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유서준

사 설

교육예산 집행 투명성, 선언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야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교 시설공사와 교육예산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특정 물품이 여러 학교에 일괄 납품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의 자율적인 물품 선택권 보장을 주문했다. 교육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지시가 단순한 원칙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주목할 대목은 천 교육감이 시설공사와 관련해 여러 항의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다.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공식 회의에서 이를 거론했다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특정 업체에 납품이 편중된 사례가 있는지, 학교의 구매 자율성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철저한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학교 시설공사와 물품 구매에는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된다. 그만큼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거나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배제되는 구조가 존재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물론 동일 제품의 반복 납품 자체가 위법이나 특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업체 선정과 계약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의 지시를 계기로 최근 학교 시설공사와 물품 납품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 업체별 계약 현황과 수의계약 비율, 동일 제품의 반복 납품 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당한 관행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의 실질적인 구매 선택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의 의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민원의 실체와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공적 재원이다. 단 한 푼도 불공정한 계약이나 불합리한 관행으로 낭비돼서는 안 된다. 천 교육감의 투명성 강조가 일회성 지시를 넘어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오늘의 시

감자밥 / 이 동 순

아지랑이
빈 들판에 가물거리면
싱그런 봄내음 가득한 냉이 국
상에 오르네
국사발 옆에는 사기 밥그릇
고슬고슬 지어진
좁쌀 밥 속에 이쁘게
박힌 것이 무엇인가
부엌 아궁이 솥 단지에
감자 깎아 놓으라는
엄마 목소리 들리네
여름해 일찍 떠오르고
나는 삿자리 깔고 앉아
숟가락으로 박박
감자껍질 벗기네
오랜 세월 감자껍질 벗기느라
반쯤 닳아있는 놋쇠 숟가락
바닷가 아낙네들
쌀도 없이 차려내는 아침 밥상
좁쌀 서너 줌 넣고
감자 섞어 지어내면
보기만 해도 그득해 보였던
고봉 감자밥이여
메주고추장 휘이 둘러
바가지에 척척 비벼내면
마당 귀 그늘에 앉아
짧기만 하던
하루해여

시인 약력 : 1950년 경북 김천 출생. 경북대 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마왕의 잠'이 당선돼 등단했다. 1989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됐다. 시집으로 개밥풀, 물의 노래 등이 있다. 민족서사시 홍범도(전5부작10권)을 발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회장 신영배 | 발행·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장정철 |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버지가 맨손으로 시작한 땅, 아들이 키운다

익산 청년농업인 이지훈 씨가 걸어온 열네 해의 농사



농사에서 가장 비싼 건 때를 놓친 대가

열네 해 들녘이 가르쳐 준 것

시월의 익산 들녘은 비워지는 중이다. 벼가 베어진 자리에 그루터기만 남고, 그 빈자리에 다시 밀이 들어설 것이다.

농사는 비우고 채우는 일을 되풀이하며 이어진다. 이지훈(1989년생) 씨의 농사도 그렇게 한 사람의 빈손에서 시작됐다.

그는 15만 평 가까운 논밭에서 쌀과 논콩, 밀, 조사료를 기르고 한우 150여 마리를 키운다. 송아지를 받아 출하할 때까지 직접 키우는 일관사육이다. 하루는 축사에서 소의 상태를 살피는 일로 시작해 논과 밭으로 이어진다.

봄에는 육묘와 파종, 이앙이 몰리고 여름에는 방제가, 가을에는 벼와 콩 수확과 조사료 작업이 겹친다. 벼 육묘와 드론 방제, 퇴비 유통까지 맡다 보니 이제는 농기계를 모는 일만큼 어느 논에 어떤 장비와 사람을 먼저 보낼지 정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그는 "농업인의 하루는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할 일을 얼마나 책임 있게 마무리했느냐로 결정된다"고 했다.

■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그의 아버지는 물려받은 땅 한 평 없이 농사를 시작했다. 작고 낡은 농기계로 한 해 한 해를 버텼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 그 아버지가 농기계 사고로 손가락을 잃었다. 평생 들에서 일해 온 아버지가 다친 모습은 어린 아들에게 오래 남았다.

회복을 마친 부모는 아들에게 농업을 권했다. 다른 길을 찾으라고 말할 법한 순간이었다. 아들은 그 권유를 받아들였다. 한국농수산대학교 대가축학과에서 한우를 공부하고 2012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다시 장비를 들였고, 들녘은 그때부터 넓어졌다.

농사를 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짧게 "없다"고 답했다. "직장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하잖아요. 농사는 자유 속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일이에요. 미뤘다가 몇 배로 되돌아오는 걸 겪으면서 배우는 거죠."

■ 풀이 어릴 때

그가 열네 해 동안 몸으로 익힌 것은 '때'다. 논에 난 풀은 어리고 땅이 젖어 있을 때 손끝으로도 뽑힌다. 덥다고, 바쁘다고 며칠 미루면 땅이 마르고 뿌리는 깊어진다. 약제 한 통이면 될 일이 서너 통이 되고, 끝내 예초기를 들어야 한다.

"일을 미룬다고 그 일이 사라지지 않아요. 농사에서 가장 비싼 건 농기계값이 아니라 때를 놓친 대가예요."

그 말은 잡초에만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미뤄 둔 자리에는 대개 더 깊은 뿌리가 내린다. 그는 그 이치를 들에서 배웠고, 이제는 경영에도 그대로 옮긴다. 바꿔야 할 때 결정하고, 투자할 때 따져 보고, 준비할 때 먼저 움직인다.

그래도 사람의 부지런함만으로 닿지 않는 곳이 있다. 가뭄 끝에 쏟아지는 집중호우, 해마다 낯설어지는 병해충이다. "가장 두려운 건 힘든 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도 결실을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 혼자가 아닌 농사

그의 농사는 네 갈래로 나뉘어 있다. 논콩은 뿌리깊은영농조합법인, 밀과 조사료는 성농영농조합법인, 퇴비 유통은 익산시퇴비유통영농조합법인, 드론 방제는 익산시4-H항공방제단영농조합법인이 맡는다.

이 가운데 세 곳의 대표가 그다. 여러 작목을 함께 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대신 한 갈래가 흔들릴 때 다른 갈래가 버팀목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4-H연합회 회장을 지낼 때도 그는 사람을 모으는 일에 마음을 썼다. 구기 종목 위주의 체육대회를 열고, 지역별 리그전으로 치르는 e스포츠 대회를 처음 만들었다. 회원들은 그 대회를 가장 즐거웠던 시간으로 기억한다. "사람은 만나야 하고, 같이 해야 해요. 회원들이 바란 건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함께 어울릴 자리였어요."

■ 아버지에게 돌려드릴 시간

농장의 주인은 아직 아버지다. 그는 웃으며 "아직도 용돈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 장면은 이미 그리고 있다. 다른 곳에서 일하는 동생이 농장 합류를 고민하고 있다. 동생이 들어오면 가족농을 법인으로 바꾸고, 해마다 필요한 농지와 장비를 법인 이름으로 차근차근 마련할 생각이다.

가공과 유통, 체험을 잇는 6차 산업과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직거래도 그 그림 안에 있다. 기후 탓에 모양은 덜 고와도 맛과 품질에는 문제없는 농산물을, 그 사정을 숨김없이 알리고 제값에 내놓는 길도 찾고 있다.

농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그가 건네는 말은 담담하지만 단호하다. "시골 가서 농사나 짓자"는 말이 통하던 시절은 끝났다고 했다.

재배 기술에 경영과 회계, 농기계와 유통, 정책까지 알아야 하고, 지원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에 들어오는 것보다 오래 남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그는 회원들 곁에서 지켜봤다.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휴식이다.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셨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운동도 하시고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빈손으로 시작한 아버지의 들녘은 이제 아들의 손에서 넓어지고, 머지않아 형제의 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군 땅을 아들은 지금 다음 사람이 설 자리로 고르고 있다.

/이상훈 기자





"아버지에게 휴식을, 들녘에는 다음 사람이 설 자리를"



<사진=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홍보팀>